

【한국물류협회, 한국정보기술연구원과 업무제휴 협약 체결】



(사)한국물류협회(회장:서병륜, www.kola.or.kr)는 지난 1월 19일 협회 회장실에서 산자부 산하의 IT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원장 박영기)과 업무제휴 협약식을 맺었다.

한국물류협회는 첨단 정보화시대가 요구하는 고부가 가치 물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물류와 IT기술이 접목된 물류 IT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물류산업과 첨단 정보시스템의 접목 관련 협동 연구 수행 ▲물류 IT교육 및 물류 전문인력 대상 정보기술 교육 공동 실시 ▲정보시스템 장비/시설의 공동 활용 및 전문 인력의 상호 교류 ▲물류산업 분야에서 공인될 수 있는 물류 IT자격제도 운영 방안 연구 ▲기타 물류 정보기술 발전을 위하여 상호 합의한 제반 사항 등을 제휴 사업으로 선정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06년 한국국제유통 및 물류산업전시회, 경기도 국도비 지원대상 선정】

(사)한국물류협회와 한국유통물류진흥원, 월드전람이 공동 주최하는 「2006년 한국국제유통 및 물류산업전시회」가 경기도청의 '전시회 국도비 지원대상 선정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다.

경기도의 '전시회 국도비 지원대상 선정 프로그램'은 전시회 패턴이 아웃바운드 위주에서 인바운드로 위주로 성숙되어 갈 수 있는 여건을 선도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내 전시회를 개발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청의 혁신적인 정책의 일환이다.

올해 처음으로 국비 6억, 매칭펀드로 도비예산 9억 등을 계상하여 15억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내전시회에 적극 지원한다.

이에 2006년 KINTEX에서 개최예정인 국내 전시회를 대상으로 사업제안 평가회를 지난 1월 26일 개최하고, 그 중에서 '2006년 한국국제유통 및 물류산업전시회'를 비롯한 15개 전시회를 지원대상 선정 프로그램으로 지정하였다.

(사)한국물류협회는 지원금 중 상당 부분을 경기도 소재 물류

및 유통 관련 제조업체가 2006한국국제유통 및 물류산업전시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서비스와 기술,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며, KOTRA, 중소기업진흥회와 함께 해외바이어를 유지하는 데 활애함으로써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전시회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LogisALL, ISO 9001/14001 인증 획득】



LogisALL(www.logisall.co.kr/대표 서병륜)이 ISO 9001/14001 인증을 획득했다. ISO 인증을 획득한 LogisALL은 지난 1월 2일 개최된 시무식에서 문재승 대표(EQA국제인증센터 원장)로부터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이번 ISO 9001/14001인증 획득을 통해 LogisALL은 대외적으로 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규격, 인증번호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인증받은 기업임을 홍보할 수 있게 됐다.

【(주)아세테크, (주)엘리트교육에 물류서비스컨설팅 계약 체결】

SCM 물류 전문 솔루션 공급업체인 (주)아세테크 (대표:박중석)는 영어교육 명문기업인 윤선생영어교실의 (주)엘리트교육에 "고객만족을 위한 물류서비스 혁신 Consulting" 계약을 체결하였다.

시장 환경변화와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옥천 물류센터와 하남 물류센터의 통합 검토여부와 효율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따라 TFTeam이 구성되어 최적의 Infra와 Process와 System 을 구축 중이다.

또한, 이번 물류컨설팅을 통해 고객을 위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물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원가 절감, 상품의 유통 경로 추적 시스템 검토와 신규 매입 건물의 물류 배치 계획이 새롭게 수립될 예정이다.

기존의 출고능력의 한계를 Digital화, Speed화하여 작업 생산성과 물류작업 향상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물류 작업 효율화에 따른 물류서비스 향상과 ERP와의 원활한 정보공유와 물류 Data의 Visibility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세테크는 다수의 물류컨설팅 구축 실적과 Know-How을 바탕으로, 윤선생 영어교실의 물류센터가 서비스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센터로 거듭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통운, 코카콜라 직배송 맡아】

한국통운(대표 최승락)이 코카콜라와 직배송 정식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그동안 코카콜라 경영진이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 직배송 아웃소싱을 검토해오다 5년전부터 코카콜라 수송을 담당했던 한국통운과 직배송계약을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한국통운은 코카콜라 수송을 위해 여주에 3500평 규모로 물류센터를 2004년에 건립하는 등 이번 계약에 공을 들였다. 이번 직배송 계약 체결로 한국통운은 올해 매출이 1000억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통운은 설립 7년된 3PL물류업체로 수배송, 수출입운송, 인력아웃소싱, 창고관리 등의 물류업무를 벌이고 있으며 작년에는 최승락 사장이 한국물류학회에서 시상하는 한국물류인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EXE컨설팅, 강석현 대표 취임】

강석현 전무이사가 한국EXE컨설팅의 새로운 대표로 선임되었다.

한국EXE컨설팅 전 김형태 대표는 삼성전자 본사 경영혁신팀 물류그룹장으로 임명되어, 삼성전자 전자 Global 물류 전담 조직을 담당하게 됐다.

한국EXE컨설팅은 이번 인사개편 이외에 비즈니스 컨설팅 분야의 강화와 SCE(WMS, Visibility) 뿐 아니라 SCP 솔루션 군(DRM, CPM, S&OP)의 확장과 더불어 고객에게 Total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을 더욱 강화시킬 예정이다.

【중부대전화물터미널에 웨미리넷 유치】

대전시는 최근 유성구 대정동 중부대전화물터미널(주) (대표 이창진)에 택배 회사인 웨미리넷(주)(대표 백성기)을 유치, 중부권 물류허브터미널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1일 15만여박스의 물류를 처리(2004년 매출액 650여억원)하는 웨미리넷은 중부대전화물터미널에서 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 물류 집.배송센터 설립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집.배송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1일 80여대의 화물차량 수요와 200여명의 고용을 창출, 물류운송사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중부대전화물터미널을 수도권과 영·호남을 잇는 광역물류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통운, 국내기업 최초로 베트남 종합물류 합작법인 설립】



대한통운(대표 이국동)은 서소문 대한통운 본사 6층 회의실에서 베트남 국영선사인 SAIGON SHIPPING社와 현지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KOREX-SAIGON LOGISTICS Co., Ltd.' 라는 이름의 이 합작법인은 국내기업이 베트남에 세운 최초의 종합물류법인이며, 대한통운과 자회사인 대한통운국제물류, 베트남 SAIGON SHIPPING사 3자 합작으로 설립됐다. 투자 비율은 대한통운이 41.3%, 대한통운국제물류가 25%이며, 사이공 슈핑사가 33.7%이다. 이 법인은 이후 베트남 현지에서 육상 운송 및 통관 업무, 포워딩, 창고업, CFS관리 등의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한통운은 지난 1996년 베트남에 진출, SAIGON SHIPPING사와 'KOREX SAIGON CONTAINER TRANSPORTATION Ltd.' 이라는 합작 법인을 설립해 컨테이너 전문 운송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국제영업환경 변화와 대한통운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전략에 의해 기존 합작 파트너와 새로운 종합물류법인을 설립하게 됐다.

이번 신규 법인에는 대한통운국제물류의 지분이 추가로 투자되었으며, 기존의 운송통관만 하던 업체에서 보다 전문적인 종합물류업체로 확대 발전해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합작 법인 설립은 대한통운의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베트남은 최근 경제활동이 활발해 물류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우리나라 최초의 자원순환특화단지(ERC) 조성】

환경부는 지역별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의 기본구상 하에 재활용산업을 21C 경쟁력 높은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

내 최초로 전북 전주시에 자원순환특화단지(Eco-Recycling Center : ERC)를 조성키로 하였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설치목적은 재활용산업의 물류비용 등 생산 비용 절감을 통하여 재활용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의 재활용산업의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데, 전주시에 24천평 규모의 재활용 전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물류비용절감, 매립·소각 등의 폐기물처리비용 절감, 고용창출 효과 등 연간 약 160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고유가의 영향으로 새로운 재활용기술의 개발과 함께 재활용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가상승,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재활용업체의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번 자원순환특화단지(Eco-Recycling Center)조성은 재활용산업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전주시와 함께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개년에 걸쳐 총 171억원(국비 85.5억원)을 투자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산 188번지 일원에 80,592m(24천평) 규모의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단지 내 공동물류시설, 공동폐수처리시설, 공동연구시설 등의 공동기반시설을 함께 설치하게 되며, 단지조성 사업은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시행한다.

입주업체는 전주지역의 재활용업체와 함께 페플라스틱, 전자제품, 유리, 자동차 등의 재활용업체 중 신기술과 우수기술을 보유한 재활용 업체 15여개소를 선정하여 경쟁력 있는 재활용산업단지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자금력이 부족한 재활용업체의 입주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임대방식으로 입주시키는 한편, 아울러 친환경 녹지공간을 함께 조성하여 모범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선진국의 재활용단지 운영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특화단지(Eco-Recycling Center) 모델의 개발, 지역별 또는 권역별 설치계획 수립 등 장기적인 사업추진 로드맵을 마련하여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군산시 물류혁신지원센터 건설】

서해안의 생산·물류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물류혁신센터가 전북 군산에 건립된다. 최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오식도동 3만여평의 부지에 144억원을 들여 2007년까지 2층 규모(3천500여평)의 물류혁신센터를 건립한다.

시는 오는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뒤 공사를 발주, 세계물류박람회가 열리는 2007년 10월 이전에 준공할 예정이다.

세계물류박람회는 2007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군산시 군장 국가산업단지에서 국내외 물류 및 운송·장비·보관·하역 등 500여 개 관련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SAP코리아, 로컬 연구개발(R&D)센터 공식 개소】



SAP 코리아(대표이사 한의녕)는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의 산실이 될 SAP 코리아 로컬 연구개발(R&D) 센터 (이하 연구개발 센터)를 한국에 설립,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SAP는 지난 1월 24일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 한스 피터 클레이(Hans-Peter Klaey) SAP 아태지역 총괄 사장, SAP코리아 한의녕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SAP코리아 본사인 도곡동 군인공제회관 28층에서 연구개발 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국내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외자 유지의 최초 사례로 손꼽히는 이번 연구개발 센터는 향후 국내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비즈니스 솔루션을 개발하며, 한국형 솔루션 개발을 위한 국내 파트너 육성 및 기술을 전수, SAP의 선도기술에 대한 국내 소개 및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진대제 장관은 개소식에서 “SAP코리아의 로컬 연구개발 센터 설립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향후 본 연구개발 센터가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국내에 선도기술을 소개하는 등 국내 IT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AP 본사가 연구개발 센터 투자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지난 7월 방한한 헨닝 카거만(Henning Kagemann) 회장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의 협의, 그리고 SAP 코리아가 본사와 공동으로 실시한 한국 시장 연구 결과였다. 이후 SAP 코리아는 한국산업기술포럼에 현지 R&D 센터 개소를 신청했으며, 지난 10월 공식 승인 받았다.

한편, 도곡동 SAP코리아 본사 27층에 자리잡은 연구개발 센터는 조혁진 연구소장을 필두로 연구고문 1명, 전문연구인력 13명, 연구지원인력 2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솔루션 개발, 정보시스템 관리 연구, 그리고 핵심연구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지원】

인천공항세관은 최근 인천공항 내 자유무역지역이 본격 운영됨

에 따라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관의 지원방안에 따르면 세관 보세구역에 대한 특어를 건설교통부의 입주기업체 허가로 대신하고,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물품이동도 종전 세관에 일일이 반출입 신고했던 것을 업체 자율로 변경했다.

또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수출입 통관을 지원하기 위한 세관직원 근무도 24시간 현장 밀착통관 형태로 운영해 입주기업체의 물류 부가가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세관은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영업행위 및 무역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대테러 대비·밀수예방·국민보건 등 사회적 안전관리를 위한 세관검사 업무는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화물터미널지역 33만평과 공항물류단지 30만평이 자유무역지역으로 각각 지정됐으며, 공항물류단지에는 (주)KWE코리아, 범한중합물류(주), 삼성로지텍(주) 등 3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세관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세관도 화물검사과를 신설하고 자유무역지역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TX 특송서비스, 광주역 실시]

KTX특송 서비스를 광주역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그 동안 호남선 충청리역에서 취급하던 KTX특송 서비스를 광주역으로 옮겨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호남선 충청리역의 경우 광주 도심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해 고객들의 특송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불편이 있어 2006년부터 충청리역 취급을 중단하고 대신 광주역으로 옮겨 시행하게 된 것이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광주역에서 KTX특송서비스가 시행되면, 인구 밀집 지역에 더욱 가까워져 편의가 크게 증대되어 개인은 물론 기업 차원의 서비스 이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KTX특송 서비스는 경부선 서울, 광명, 대전, 동대구, 부산역과 호남선 용산, 광명, 서대전, 익산, 충청리, 목포역 등에서 시행되어 왔다.

KTX특송서비스는 앞으로 더욱 확대,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철도공사는 2006년에 천안·아산 역에서 신규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으며, 각 역 KTX특송서비스 수화물 접수처의 크기도 더욱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TX특송서비스에 대한 문의로는 KTX특송 콜센터 1588-5825 또는 홈페이지 www.15885825.com를 이용하면 된다.

【현대택배 하루처리량 50만박스 돌파, 국내최고기록경신】

(단위:천박스)

1.16 (월)	1.16 (월)	1.16 (월)	1.16 (월)	1.16 (월)	1.16 (월)	1.16 (월)	1.16 (월)	1.16 (월)	1.16 (월)	1.16 (월)	계
401	357	364	379	392	268	174	506	492	489	186	4,008

1.26(목) 집하마감

현대택배는 2006년 설 특별수송기간동안 총 400만8천박스를 처리해, 지난해 설 물량인 331만2천박스보다 21% 증가한 물량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현대택배는 종전 국내 하루최고 처리물량인 45만3천박스(현대택배 2005 추시기록)를 훌쩍 뛰어넘어 50만박스를 돌파하는 신기록을 세우는 등 국내 택배사의 한 획을 긋는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같은 물량증가는 백화점, 할인점의 설 매출이 지난해 대비 두자릿수의 증가를 보인데다, 소수의 고가품목이 다수의 중저가 품목으로 분산 배송됨에 따라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대택배 양성익 마케팅부장은 "전 직원이 한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연일 경신되는 국내 최고배송물량을 무난하게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시장 변화를 주도해나갈 수 있는 리딩 컴퍼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물류**

>>인사이드 - 승진 (2006년 1월 1일자)



>>김 인 구 이사
-(사)한국물류협회



>>박 현 곤 부장
-(사)한국물류협회



>>정 경 선 대리
-(사)한국물류협회